

2013년 고용 전망

남재량*

우리 경제의 2013년 성장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일단 2013년 세계경제가 2012년에 비해 다소 나아질 것이나, 대체로 3.5% 정도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그리 큰 희소식이 되지 못한다.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도 2013년 한국 경제가 2012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향 수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재정절벽 위험을 비롯한 여러 정책적 어려움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계부채 문제도 부담스럽다.

침체된 경제 상황과 달리 2012년 우리의 고용 실적은 놀랄 정도이다.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461천 명이나 증가하였다. 실업자 수를 보더라도 839천 명에 불과해 최근 4년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제는 침체되어 있는데도 노동시장 성과는 두드러지게 좋은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이상 신호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다.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노동력 구성 변화를 겪고 있으므로 연령집단별 특성들을 살펴 이를 전망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을 보면, 2012년 10월까지 20대 후반 연령집단의 고용률만 미소하게 하락하였을 뿐 다른 연령집단들의 고용률은 모두 상승하였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3분기를 보면, 25~29세의 고용률은 1.4%포인트나 하락하였다. 청년 고용률 하락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기업의 가장 손쉬운 고용조정 방법이 신규 채용 억제이며, 그 주된 대상은 청년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50대 및 60세 이상 연령집단의 고용률 상승도 상당한데, 이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은 주로 노동공급 측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 연령집단은 고령화 및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고용률 변화 역시 고용 전망에 중요하다.

한편 임금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반면 자영업자는 2011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들어 분기별로 15만 명 수준을 오르내리는 자영업자 증가폭은 50대의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경기와 고용 간의 괴리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jmam@kli.re.kr).

인들이다. 이미 2012년 10월의 자영업자 수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었다. 이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향후 고용 전망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현재의 고용 호조세를 견인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최근 들어 제조업 고용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경우 우리 경제가 2013년 들어 급격히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당분간 L자형 저성장률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 전망과 함께 앞서 살펴본 핵심적인 고용 변화 요인들인 50~60대, 자영업자 그리고 서비스업의 고용 변화가 2013년 고용 전망에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50~60대 연령은 생애의 주된 직장에서 은퇴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기이다. 그런데 은퇴 이후 연금 수령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자녀의 경제적 의존 등으로 인해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50~60대 가운데 은퇴 후 임금근로로 흡수될 수 있는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 상당수는 주로 서비스 부문에서 자영업의 형태로 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은 당장 생계를 위한 소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므로 경기침체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에서 쉽사리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즉 노동공급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여 자영업자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25~29세 청년 고용률 하락에서 보았듯이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증가세 둔화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서비스 부문의 고령 자영업자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나 그 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임금근로자 증가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적인 둔화 추세를 보이거나 최근 들어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L자형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지속된다면 임금근로자의 고용 증가폭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2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제에 매우 큰 충격이 발생하였던 예외적인 시기를 제외한다면 경기침체가 동안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일정 수준 이하로 크게 하락한 경우를 찾기 어렵다.

이상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2013년 고용 수준은 2012년의 취업자 수 증가 정도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이나, 그렇다고 고용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어렵다. 구체적으로 취업자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나 그 증가폭은 2012년에 비해 상당 정도 감소하여 대체로 30만 명대 초반을 다소 웃도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고용동향을 비롯한 각종 경제동향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적절한 고용정책 대안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야 하겠다. 특히 경기침체의 피해가 한계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KLI**